

현대미술의 플랫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김인선(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디렉터)

‘윌링앤딜링’은 예술이라는 것이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윌링앤딜링이라는 이름은 ‘원하는 것을(willing) 다루어본다(dealing)’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전시라는 영역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로 약 10년 동안 영리와 비영리 시스템을 넘나들며 다양한 기관들에서 일 해본 후 저는 이 공간을 만들기 2년 전인 2009년 후반에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윌링앤딜링 아트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미술 콘텐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프로젝트, 글쓰기, 작품 판매, 전시 기획, 강의 등 미술 전시와 관련한 것은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을 통해 알게 된 당시 인터알리아 박은주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후원으로 2012년 6월, 저의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로 전시 공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후원에 관하여 언급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공간 운영에는 당연히 자금이 들어가야 하지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모든 단위들(전시 연출, 인건비, 홍보, 월세 및 유틸리티 등의 건물 관리비, 작품 관리비 등등)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품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사실상 이는 힘듭니다. 작품 구입은 특정 작가에게 주로 몰려있고, 그나마 유행처럼 바뀌고, 대다수의 작가들은 불안정한 판매 혹은 비매의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직장이 대안 공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 기금도 제대로 없었던 시기였고 이듬해 형성된 기금도 아주 적은 수준이어서 비영리 기관은 후원이나 자산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선불리 전시 공간 운영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었지요. 그러던 중 너무나 운이 좋게도 제가 독립하여 활동한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독지가의 도움으로 조그만 공간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원으로 전시 공간 운영을, 국가 기금으로 전시 프로그램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라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주변의 도움이 최대한 잘 사용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윌링앤딜링 아트컨설팅의 업무 단위 중 하나인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전시 공간이기도 하지만, 미술 관계자들의 파빌리온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지 전시 보여주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전시를 매개로 한 미술인들의 교류가 발생하여 생성되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작품 자체는 작가들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는 되도록 많은 이들에 의하여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로부터 또 다른 단위들이 파생되어 콘텐츠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저 같은 기획자, 공간 운영자들에게 커다란 가치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저 개인에게도, 또한 이곳에서 활동한 작가와 이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함께 이야기 해주는 분들에게도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프로그램 단위는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는데, 이들을 하나씩 복기하며 이 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형성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매년 10~12회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신진작가 발굴(PT&CRITIC), 30대~50대 기성 작가들의 개인전, 해외 작가 및 기관과의 교류 전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기획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 공간이 문을 열면서 만든 첫 전시는 <POTLUCK PARTY> 였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는 10명의 기획자가 작가 한 명씩을 추천하도록 하여 만든 그룹전 이었습니다. 이 첫 전시가 중요했던 것은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성격이 혼재함을 보여주는 성격을 제시하는 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된 기획자들은 공간 운영자, 과학자, 행정가, 전시 기획자, 건축가, 학생 등 다양한 군이였으며, 이들이 초대한 작가들은 미술 작가, 무용가, 공예가, 연주자, 사진가 등이었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총 5회 동안 각 기획자들과 참여 작가들의 진행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의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가 다양한 모양새를 보여주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격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 작가의 전시인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 세계로부터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자 할 때, 혹은 실험적 시도인 작업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대부분 본인이 10년여 간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알게 된 작가들이었습니다. 어떤 작가는 상업 화랑의 전속 작가이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 저는 작가들이 상업성을 고려한 작업 외의 잠재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성 작가들에게 그동안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자신이 속해있는 시스템 안에서 보여주기 힘들었던 색다른 시도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을 이야기 했고, 많은 작가들은 기존의 작업에서 비껴가는 새로운 시도를 행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수영 작가의 공간 설치와 강석호 작가의 부조 작업, 그리고 이수경 작가의 크리스마스 특별기획 등이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매년 1~2회 진행되는 PT&CRITIC은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처음 개인전을 가지는 작가의 프로그램이니 만큼 신진 작가를 발굴한다는 취지는 개인적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움직임을 지속하여 주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매해 배출되는 작가 군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출발 지점의 작가들을 통하여 지금의 미술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제 스스로를 미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진 작가들의 작업을 읽고 해석하고 이들과 대화하는 패널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작가 선정은 제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패널의 추천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널은 보통 2~3명, 많게는 4명까지도 선정된 작가와 함께 이야기 하는데 이들과 작가는 전시 전까지 2~3번의 미팅을 하게 되고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개적인 작품 프레젠테이션과 크리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의 패널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미술인들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본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이 공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시마다 각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이야기하고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혹 이를 퍼포먼스나 워크숍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PT&CRITIC 공개 행사를 포함하여 모두 녹취로 기록됩니다. 이 텍스트는 도록에 실리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아카이브로서 작동하는데 이러한 기록은 이 공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가의 특정 전시에서의 활동이 기록된다는 것은 작가의 긴 커리어 속에서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작품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전시에 대한 아카이브는 공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작업이기도 하여 의미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서 2017년과 2018년에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작가 커뮤니티 공간인 'CAS(Contemporary Art and Spirits)' 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지역작가들과 한국 작가들 간의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포르투갈 작가 토마스 히폴리토(Tomaz Hipolito)의 개인전이 있으며 2019년에는 덴마크와 중국에 한국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시 공간 운영 초반에는 국제 교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저와 함께 전시한 작가들의 활동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면서, 국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적극적인 국제 교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년간 진행해보았던 '신진 기획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결과로 만들어진 전시 자체는 좋은 전시였으나 그 과정에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진 기획자라는 말의 모순을 체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의 프로그램의 과정은 실무를 탄탄하게 진행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진행하는 기획자들과의 대화 시간이 자주 일어날 수도 없었고,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세세한 교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서로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획팀은 윌링앤딜링과 상관없이 전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며 타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의 유통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미술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곤 하였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선물이 예술이네요>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프로그램 2013년 12월에 진행하였고 초대된 작가들에게 선물로서 구입 가능한 버전의 작품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20명의 작가를 초대하였으며, 이들의 작은 작업들의 가격은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습니다. 예상대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이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20명의 작가와의 프로젝트가 그리 쉽게 진행되기는 시간과 여력에서 무리가 있어서 잠시 접었습니다. 공간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긴 후 이 프로젝트를 공간 한 칸의 굿즈(goods) 판매대 이름으로 삼아보았습니다. 2016년, 이 이름은 다시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어 좀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었는데 이러한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인 굿즈 판매는 이런 성격의 전시 공간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생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블라인드 데이트 Blind Date>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다 본격적인 판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서울예술마을'이라는 작가 공동체 기획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작가 미술장터로서 작가

의 작품을 직거래 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를 진행하면서 이 역시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활동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거래 장터의 취지는 작가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새로운 컬렉터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그리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 도움을 받아 기성 아트페어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트페어였는데 분위기가 재미있지는 않더군요. 제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판매가 조금 되었습니다만, 서울에서 오신 분들만이 구입해주셨습니다. 미술품 구입은 '익숙함'이라는 부분이 매우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갤러리들(갤러리2와 갤러리 조선)과 함께 협력하여 얼마 전에 작은 아트페어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협동작전(COOP, Check Out Our Project)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진행한 <솔로쇼 SOLO SHOW>입니다. 이 행사를 지속하기 위하여 독자적 성격과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홍보 활동을 중요하게 진행합니다. 홍보는 저에게도,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 생산과 기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홍보물과 행사의 대화들은 기록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행사들은 작은 규모라도 책자로 만들어지며, 모든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되면 작가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녹음 편집하여 팟캐스트(아트톡 윌링앤딜링)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활동을 외부에 보다 재미있게 알리고자 매 전시별 뉴스레터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가와 공간을 상생하게 만드는 장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능한 것은 전문적인 업무가 가능한 인력이 있어서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공간의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공간 관리와 전시 진행을 맡으면서도 사진 촬영과 홍보물 제작, 배포는 한황수 코디네이터가 진행하고 있으며, 텍스트 생산과 번역 등을 최정윤 큐레이터가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위하여 일해 주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프로그램으로서는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또 한편 전시마다의 다양성 때문에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성격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의구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고민을 시작하였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무슨 이야기든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신 패널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관객 분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기대해보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